

# 고판화로 만나는 '지혜의 빛'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나는 판화의 美

### K-Museums 초청특별전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목련경〉. 1584년(선조17) 승가산 흥복사 간행본으로, <대국건련경>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서울 나들이  
흥복사 1584년 발행본 <목련경>  
밀교 관음사상 상징 '십일면...'  
정희대왕대비 발원 변상도 '주목'

1584년 승가산 흥복사에서 발행한 <목련경>을 비롯해 고판화 10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과 함께 7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 II에서 특별전 '인쇄 문화의 꽃, 고판화'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민속박물관이 지역 공·사립박물관 소장품을 서울에서 만나는 취지에서 기획한 'K-Museums 초청특별전'의 첫 번째 행사로 민속박물관이 공·사립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박물관에서 시도하는 합동 기획전을 확대한 것이

기도하다. 인쇄문화의 꽃, 판화의 역사와 쓰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옛 판화의 역사와 쓰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 구성되었다. △ '1부 세상을 밝히다. 지식', △ '2부 소망을 담다. 염원', △ '3부 맺을 더하다. 꾸밈'으로 나누어 관람객들을 찾는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어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일본에서 발굴해 온 임란 전인 1584년 승가산 흥복사에서 발행한 <목련경>이다. 회귀본으로 평가 받는 작품으로, 한국판화만의 독특한 선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회화에 큰 영향을 준 중국의 화보(講譜)인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 초간본과, 조선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소설 서사기 삽화, 조선시대 화가의 아름다운 채색이 들어 있는 시어화보도 우리나라에서 발굴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희대왕대비 발원 변상도(貞熹大王大

妃 發願 變相圖 · 1470년)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변상도중 하나다. 이 보다 앞서 제작된 광평대군신씨발원변상도(1459)는 일본서사화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 소장본으로는 가장 뛰어난 판본이다. 특히 조선시대 8대 각수중에 한 명인 흥개미치 서명이 들어가 있어 흥미롭다.

십일면천수천안관음보살도(중국 청 도 광道光 1821-1850)는 밀교의 관음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진 관음보살을 그린 판화로, 중생의 고난을 해소하고자 손에 각종 법기를 들고 있다. 청나라 문학가이자 장서가인 석은옥(1756-1837)이 쓴 글이 있으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소개되는 작품 중에 근세일화로 꼽히는 작품은 청나라 건륭년간(1761-1782)에 소주 도화소에서 제작된 대형당시화보판화이다. 일본 우키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 판화로 소주대형 산수판화는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 100여점이 채 안되게 남아있다.

당시선화보 판화는 당나라 함흥십칠로도 꼽히는 장빈의 시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한 실경적인 묘사를 도입하였으며, 서양의 동판화기법도 사용된 매우 드문 세계적인 판화도 평가된다. 한편,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학술·예술적 가치가 높은 옛 판화를 수집·연구하고 널리 소개하는데 앞장서 온 박물관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특별전은 원주에 위치해 있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옛 판화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 후 9월부터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순회전시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세 점 보물 지정

### 동제염거화상탑지 등 14일까지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 중 4월 보물로 지정된 유물 세 점을 6월 14일까지 특별공개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작품은 △동제염거화상탑지(보물1871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1872호) △원주 학생동 철조약사여래좌상(보물1873호) 등이다. 춘천박물관은 "지난 4월 보물로 지정

된 세 점의 유물은 한 달 여 간의 보물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기존의 유물과 함께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동제염거화상탑지"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 염거화상이 844년(문성왕6)에 입적한 내용과 855년에 탑지를 제작한 내용을 해서체로 전각했다. 동판에 새겨진

글씨는 9세기에 유행한 쌍구체(雙鉤體)로 당시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끝 자국은 통일신라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함을 잘 대변해 준다.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이 돋보이는 관음보살좌상으로 원나라와 고려, 조선 불교조각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원주 학생동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음육평) 들뜰에서 서울로 무단으로 반출된 다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공업 씻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몫이다

(共業)

### OCN 드라마 '실종 노와르 M'

드라마(Drama)를 가리켜 한국에서는 연속극이라고 한다. 드라마는 본래 극(劇)의 의미로서 희극(Comedy)과 비극(Tragedy)의 통칭으로 사용되던 고대 그리스어이다.

사전적 의미는 "행동하다"이다. 따라서 배우가 인간 행위를 모방하는 연극, 영화, TV 드라마 등 배우가 등장하는 모든 장르를 포괄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속극부터 떠올린다. 이는 아마도 TV라는 매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재밌는 것은 외국에서는 연속극을 'Soap CF'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연속극의 시작이 비누 광고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지적한 시뮬라크르(Simulacre)가 얼마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지 대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즉,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재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을 말한다.

가령, 가상게임이 대표적인 예일 테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앞선 것은 텔레비전일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는 태생적으로 대중문화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사회적 특징 때문인지 천민자본주의적 문화를 여과 없이 고스란히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침 드라마는 물론, 저녁 드라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공식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중과 방송의 드라마들은 그 주인공들 중에 상류층이 끼지 않는 법이 없다. 대중이 지니고 있는 신분상승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 드라마의 법칙을 깬 것이 종편 드라마들이다. JTBC가 방영한 <우나의 거리>와 이번에 필자가 소개하려는 <실종 노와르 M>이 대표적이다.

<우나의 거리>는 <서울의 달>로 유명한 김은경 작가가 극본을 쓴 하중민의 삶을 다룬 드라마였다면, <실종 노와르 M>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노와르와 호로 장르를 혼합해 만든 드라마다.

총 10부작 중 방송된 7부작 내용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 아들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



<실종 노와르 M>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노와르와 호로 장르를 혼합해 만든 드라마다.

### M은 수수께끼이면서 메모리

### 동해보복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한국사회 무의식의 기억 수면 위로



한 복수, 물증이 없어 면죄부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정리해고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 등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상흔에 대한 복수라는 공식은 자연스럽게 동해보복(同害報復)을 떠올리게 한다. 동해보복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피해를 정확히 똑같은 벌을 주도록 한 원칙을 일컫는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동해보복의 당사자가 피해자 개인인 동시에 사건을 방조한 사회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업(共業)을 떠올리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영화의 부흥기에 주목 받은 작품들인 윤종찬의 <소름>,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공수창의 <알 포인트>, 박찬욱의 <올드 보이> 등은 산업화

혹은 근대화의 폭력에 대한 상흔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실종 노와르 M>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격동의 시간을 반세기만에 이룩한 한국사회 위업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우울한 무의식의 기억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인연(因緣)이란 말에서 '인'은 결과를 산출하는 내적·직접적 원인이며, '연'은 결과의 산출을 도와주는 외적·간접적 원인이다.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주된 것이 인이며, 보조적인 것이 연이다. 또 인을 넓게 해석하여 인과 연을 합해 인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연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 멸한다.

용수(龍樹)는 <중론(中論)>에서 "존재의 생멸(生滅)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나아가 그 인연마저도 실재성이 부정되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12연기법'에 따르면, 인연은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2연기인 것이다. 이 고통의 삶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업(共業)은 말 그대로 공동의 업보이다. 따라서 업보를 씻는 것도 공동의 몫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종 노와르 M>은 그 사실을 일러준다. 아마도 <실종 노와르 M>에서 M은 Mystery(수수께끼)를 의미할 테지만, 필자에게는 Memory(기억)로 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용오 작가

## 불지님들의 오늘 운세 는?

###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ISET 3만원

###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각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豫知)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건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